

‘천지공사’의 종교윤리적 의미에 대한 연구

류 성 민

한신대학교 ·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천지공사’에서의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
- III.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과 그 특징
- IV. ‘천지공사’의 윤리적 체계와 그 현실성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대순진리회의 핵심적 신념인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나타난 윤리적 의미를 오늘날의 종교다원사회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종교다원사회를 이루고 있다. 2005년의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종교인구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반수를 조금 넘는 종교인구(53.1%)가 있을 뿐이며, 종교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없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가 종교인구의 약 98%를 점하고 있고, 그 외에 유교, 원불교, 증산교, 천도교, 대종교 등 인구센서스의 문항 항목에 포함된 종교들도 10만 명 내외의 신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또

1)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우리나라 종교인구의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는 좋고,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 1985, 1995,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 (2009), pp.25-66을 참조.

한 어느 특정 종교가 사회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거나 지배적인 혹은 대표적 위상을 지녔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종교현실이다. 이러한 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종교나 종파 혹은 교단이나 종단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가르침이나 도덕규범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이 글의 문제제기이다.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나름대로의 윤리체계를 만들고 구체적인 도덕규범들을 제시하여 신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범들을 경전이나 교리에 의거한 종교적 신념을 통해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을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도덕규범은 정당한 것으로 수용된다.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윤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다원사회에서는 종교적 신념 또한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회 전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종교적 신념이 있을 수 없다. 특정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되는 종교윤리는 그 종교 공동체 밖에서는 그 신념을 통한 정당화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사회가 통합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윤리적 토대가 필요하고, 각각의 종교나 종단에서 제시하는 윤리 규범도 그 토대와 부합될 때만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규범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다종교사회에서 각각의 종교들은 사회 전체에서 수용될 수 있는 윤리규범들을 제시할 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종교들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도 가능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은 ‘대순진리회’에서 제시하는 윤리적 규범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경(典經)』²⁾은 ‘대순진리회’의 경전으로 주로 신앙대상인 ‘구천상제’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며, 그 중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약 9년 동안의 ‘천

2)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찬, 『전경(典經)』(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이하에서는 『전경』으로 약칭. ‘천지공사’ 관련 『전경』의 내용과 다른 경전자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대순진리회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16 (2007), pp.161-198 참조.

지공사(天地公事)에 대한 기록은 ‘대순진리회’의 핵심 신념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교리와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천지공사’에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하는 윤리적 가르침이나 도덕규범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것들이 ‘대순진리회’의 윤리체계의 근간이 되었다. 여기서 관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 규범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을 종교적 신념과 윤리 규범과의 관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정 종교의 윤리 규범들은 그 종교적 신념에서 정당화 되지만, 종교다원사회에서 그 규범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다른 종교들에서 제시하는 규범들과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곧 종교다원사회에서 종교와 도덕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을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론적 시도이다.³⁾

그런 다음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천지공사’를 하던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그 규범들이 지닌 의미를 천착하려는 것이다. 20세기의 시작에서 일제 강점기 직전까지 조선시대 말기의 혼란한 사회에서 ‘천지공사’를 통해 어떤 윤리 규범들이 새로 제시되거나 강조되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천지공사’가 진행된 후 이미 한 세기가 지났다. 그렇다면 그 당시 ‘천지공사’에서 제시된 윤리 규범들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규범들의 현실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네 번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윤리 규범들은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고 의미 있는 행동규범이 될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삶에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필자는 종교윤리학의 관점에서 다종교사회에서 특정 종교의 윤리규범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설계하여 안락사와 뇌사와 같은 생명윤리 문제에 적용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은 그러한 방법론을 특정 종교의 윤리규범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류성민, 「종교와 도덕의 관계 - 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24 (2001), pp.111-125 참조.

요컨대 이 글은 특정 종교나 종단 혹은 교파나 교단의 종교윤리가 종교다원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논지 하에 ‘천지공사’라고 하는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신념에 나타난 윤리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천지공사’에서의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

‘천지공사’는 ‘대순진리회’에서 강증산을 ‘구천상제’로 받아들여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된 근거이자 ‘대순진리회’의 핵심적 신념을 형성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곧 최고신으로서의 ‘구천상제’가 인간으로 ‘탄강’(誕降)하여 본격적으로 ‘탄강’의 목적에 따라 활동한 총체가 ‘천지공사’이며, 바로 그것에 따라 ‘대순진리회’의 신념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공사’의 목적과 내용이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와 ‘신조’(信條)뿐만 아니라 의례와 조직 및 수련 등 구체적인 실천 지침의 원천이 되며, 더 나아가 ‘천지공사’에서 제시된 윤리 규범들은 ‘대순진리회’의 윤리체계를 형성하며 교단으로서의 각종 사업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천지공사’는 ‘대순진리회’의 신념에서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을 구분하는 기점이자 새로운 이상세계(‘도통진경’)로의 지향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질서와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 규범이 대거 제시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남녀평등이나 신분제도 철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등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윤리적 주장이 ‘천지공사’와 더불어 제기되었다. 말하자면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 규범들은 당시의 사회규범들에 대한 대대적 변혁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러한 새로운 도덕규범들이 ‘천지공사’라는 신

념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지공사’를 종교적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당대의 종도(從徒)들에게는 그러한 규범들이 타당하고 실천해야 할 정당성이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천지공사’를 핵심적 신념체계로 수용한 ‘대순진리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점에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는 적어도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하나는 ‘천지공사’의 시점과 오늘날의 시간적 간극으로, 그 간극 사이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야 윤리적 규범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윤리적 규범들은 항상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제시되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것들에 대한 재해석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공사’를 시행하던 당시에 제시된 윤리적 규범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재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의 고려사항은 오늘날의 다종교상황이다. ‘천지공사’가 진행되던 당시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었지만, ‘천지공사’를 ‘구천상제’의 활동으로 믿는 신념이 그것과 함께 제시된 윤리 규범들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오늘날의 ‘대순진리회’에서도 동일한 신념에 따라 그 규범들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이 글은 오늘의 다종교상황에서 ‘천지공사’에서 제시된 윤리적 규범들의 의미를 천착하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 종교의 종교적 신념에서 정당화되는 윤리 규범들이 다종교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에 대한 종교윤리학의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종교적 신념과 윤리적 규범의 관계는 종교윤리학(religious ethics)에서 중요한 방법론적 논의의 하나였다. 양자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종교윤리학이란 학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⁴⁾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하위 분야로서의 종교윤리학에서는 기술적이고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다.⁵⁾ 그래서 종교윤리학에서는 종교적

4) 종교윤리학에서의 종교와 도덕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의 글, pp.119-125 참조.

신념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의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그것은 특정 종교의 윤리 규범이 지닌 특징을 통해 그 종교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순진리회’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도덕규범들을 정당화하고 신자들에게 그 규범들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종교적 신념으로 도덕규범들을 정당화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대순진리회’를 이해하는 한 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종교나 교단에 의해 정당화된 윤리 규범들이 다종교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천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정당화되는 윤리 규범이며, 그러한 규범들이 신도들에게는 물론 한 사회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이다. 특히 종교다원사회에서 특정 종교나 교단에 의해 제시되는 윤리 규범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가 이 글의 주된 목적 중 하나이다.

도덕을 ‘한 사회에서 정당화된 규범’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신념은 다양한 정당화의 하나일 뿐이다. 종교다원사회에서는 그 종교적 신념마저 다양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정 종교나 교단에 의해 종교적 신념으로 정당화된 규범이 한 사회에서 정당화된 규범과 일치한다면 다른 종교나 교단과의 종교적 신념의 차이는 사회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나의 윤리 규범이 각각 다른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의 정당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 종교나 교단마다 그 행위를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신념은 다를 수 있지만, 어려운

5) David Little and Sumner B. Twiss,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A New Method* (New York: Harper and Row, 1978), pp.19-20 참조. 종교윤리학에서 규범적인 차원(normative dimension)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윤리 혹은 도덕 자체가 규범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종교윤리학에서는 특정 종교의 윤리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술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그 종교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종교윤리학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는 William Schweiker,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2005), pp.3-10 참조.

사람들을 돕는 행위의 윤리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여러 종교가 협력하고 협조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종교들 사이의 공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특정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 윤리 규범들이 사회 전체에서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이다.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은 어떠한가? ‘천지공사’는 ‘대순진리회’에서 시공간적으로 전후를 구분하는 기점이다. 시간적으로는 ‘선천’(先天) 시대와 ‘후천’(後天) 시대를 구분하는 ‘개벽’(開闢)의 기점이며, 공간적으로는 ‘천·지·인’의 삼계가 완전히 새로운 원리와 구성을 이루는 기점이다. 곧 ‘천지공사’는 우주의 모든 질서와 삼라만상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하는 기점이고, 그것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신념의 근간이다. 이러한 시공적 기점은 윤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 전환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곧 ‘선천’에서는 ‘상극(相克)의 윤리’가 지배했다면 ‘후천’에서는 ‘상생(相生)의 윤리’가 지배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상극’은 ‘선천’을 지배하는 원리로써 ‘원(冤)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설명된다.⁶⁾ ‘원’은 이루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 생겨나고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됨으로써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서로 싸우고 해를 끼치는 ‘상극’의 원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는 바로 그 ‘원’을 푸는(解冤) 일이며, 그렇게 될 때 모두 함께 사는 ‘상생’의 원리가 지배하는 후천으로 개벽된다는 것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신념이다.⁷⁾

따라서 ‘해원’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새로운 윤리 규범들을 제시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곧 ‘해원’이 되어야 ‘상생’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적 측면에

6) 『전경』, 공사 1장 3절, “상체계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의해 지배 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느니라…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7) 이에 대해서는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pp. 541-568 참조.

서 보면 ‘천지공사’는 ‘해원’을 위한 것이며, ‘천지공사’에서 제시된 새로운 윤리 규범들을 ‘해원’의 구체적인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천지공사’에서는 ‘해원’이 ‘척’(感)을 푸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렇다면 ‘척’⁸⁾은 무엇인가? ‘척’을 푸는 것은 어떤 뜻인가? 『전경』에는 ‘척’과 ‘척신’(感神) 혹은 ‘악척’(惡感)이란 말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척을 짓는’ 원인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표 1> 『전경』에 나타난 ‘척’ 혹은 ‘척신’의 출처와 배경

연 번	출 처	사용된 용어	척을 짓게 된 원인
1	행록 3장 16절	척신	속임(거짓말)
2	행록 4장 57절	척신, 척	살인
3	공사 2장 4절	척(2회)	전쟁(임진란)
4	교운 1장 2절	척신	허물
5	교법 1장 9절	척	반상차별
6	교법 2장 4절	척신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줌)
7	교법 2장 44절	척	억울한 원한
8	교법 2장 46절	척	오는 정이 끊김
9	교법 3장 4절	척(2회)	부자의 살기와 재앙
10	예시 1장 17절	척	(척을 짓지 말라는 권고)
11	예시 1장 58절	악척	살해(전쟁)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경』에서는 ‘척’과 ‘척신’, ‘악척’ 등의 표현이 구분 없이 사용되었지만, 대부분 윤리적 잘못이 ‘척을 짓는’ 원인으로 거론되어 있다. 곧 <표 1>의 연번 6과 10등 ‘척’을 짓는 것에 대한 경계와 ‘척’의 해소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면, 살인(연번 2, 3, 11), 거짓말(연번 1), 반상차별(연번 5), 원한을 사는 일(연번 7, 8), 빈부의 문제(연번 9) 등 모두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나 현실이 ‘척’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척’을 짓는 것은 악이 되

8) ‘대순진리회(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http://www.idaesoon.or.kr>) ‘경전-전경용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는 서운한 마음이나 원한(怨恨)을 이르는 말. 척은 오래 전부터 쓰여지던 말로 ‘척지다’라고 하면 ‘서로 원한을 품게 되다’라는 의미로, 또한 ‘척짓다’라고 하면 ‘원한을 품을 만한 일을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고 ‘척’을 짓는 행위는 죄가 되는 반면, ‘척’을 푸는 ‘해원’은 선이며,⁹⁾ 해원을 하는 모든 행동이 윤리적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요컨대 『전경』에서 언급된 ‘천지공사를 기준으로 하는 ‘선천’과 ‘후천’의 구분과 ‘개벽’, ‘선천’과 ‘후천’을 각각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상극’과 ‘상생’, ‘해원’을 통한 ‘상생’, ‘척’을 푸는 것으로서의 ‘상생’, 그리고 ‘척’에 대한 이해 등은 모두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신념이며, 그것을 통해 살인, 거짓말, 반상차별, 원한을 사는 일, 빈부의 문제 등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며, 그 극복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한다.

이러한 윤리적 정당화는 이상세계에 대한 신념을 통해 강화된다. 『전경』에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이룩되는 ‘후천’에서의 이상세계를 ‘지상천국’으로 규정하고,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 또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억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지방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⁰⁾

‘후천’에서의 이상적 세계에 대한 묘사는 앞서 언급한 ‘척’을 짓는 행위가 없는 세계이자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미래상이며, 그러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윤리적 행위에 대한 정당화이다. 말하자면, 이러한 이상세계가 현실에 도래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 윤리 규범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규범들은 이상세계에 적합한 윤리가 된다는 것이다.¹¹⁾

9) 김의성, 「대순사상의 윤리관 연구」(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p.55.

10) 『전경』, 예시 81절.

11) ‘대순진리회’의 이상세계에 대한 논의는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이러한 정당화를 통해 ‘천지공사’의 과정에서는 많은 윤리적 규범들이 제시된다. 당대의 규범들을 폐기하거나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새로운 규범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개인윤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사회윤리 규범들도 많으며, 자연 혹은 생태와 관련된 윤리적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윤리적 규범들의 특징과 오늘의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된 윤리적 규범들의 의미와 현실적 타당성이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고려사항을 통해 밝힐 수 있다. 하나는 ‘천지공사’가 진행될 당시와 오늘날의 시간적 간극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의 종교다원사회를 전제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Ⅲ.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과 그 특징

‘천지공사’는 20세기 초반 9년 동안 ‘구천상제’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천지공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공부하신 신축년(辛丑年: 1901년) 겨울부터 기유년(己酉年: 1909년) 6월 화천하시기 전까지 9년 동안 삼계(三界)를 개혁시키기 위해 펼치신 대역사(大役事).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相克)에 지배되어 세상에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므로,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 재난이 일어나서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제님께서 천지의 도수(度數)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萬古)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써 후천의 선경을 세워 세계 민생을

『신종교연구』 29 (2013), pp.217-253; 김성윤, 「강증산의 이상사회론과 ‘천지공사’」, 『지역과 역사』 7 (2000), pp.18-42 참조.

간지고자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가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선천의 종교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지상낙원을 꿈꿔왔던 데 비하여, 천지공사는 천지의 기본구조를 먼저 바꾸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상제님께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¹²⁾

이러한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순진리회’에서는 ‘천지공사’를 ‘구천상제’가 “삼계를 개벽시키기 위한 대역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천상제’를 “삼계대권을 주재하시는 분”으로 믿는 근거이다.¹³⁾ 그렇지만 그는 ‘천지공사’ 이전에도 ‘구천상제’로서 활동한 것이며, ‘천지공사’를 위한 준비라는 점에서 볼 때 그의 생애 전체가 ‘천지공사’라 해도 문제없다고 본다. 따라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의 특징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살펴 볼 수 있으며, 『전경』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전경』에 나타난 윤리적 내용들을 종교윤리학에서 다루는 윤리적 문제들이나 주요 화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¹⁴⁾ 첫째는 개인의 인격적 성숙과 도덕적 품성의 함양과 관련된

12) ‘대순진리회(여주본부도장) 홈페이지(<http://www.idaesoon.or.kr>) ‘경전-전경용어사전’의 “천지공사”.

13) ‘대순진리회’의 ‘종지’(宗旨)인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이 모두 ‘천지공사’에서 비롯된 것이며, ‘천지공사’가 그 종교적 신념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이경원, 「대순종지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6 (1998), pp.739-780 참조.

14) William Schweiker, ed., 앞의 책에서는 ‘체계’(systems), ‘인간’(persons) 등 두 범주로 구분하여, 전자에 경제, 기술, 생태, 국가, 지구, 종교 구성원 등과 관련된 종교윤리문제를, 후자에 인권, 미래 세대, 건강, 육체 문화, 종교와 종교전쟁, 도덕발달, 원주민 등과 관련된 윤리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Peggy Morgan and Clive Lawton, ed., *Ethical Issues in Six Religious Tradition*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1996에서는 종교적 정체성과 권위, 인격, 결혼, 시간과 돈, 삶의 질과 가치, 죽음과 그림, 평등, 국가와 전쟁, 세계의 공동 문제(빈곤, 생태, 인구) 등 9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이러한 주제들과 『전경』에서 다루는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개인과 인격,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혹은 국가, 인간과 자연 등 크게 네 범주로 나누고, 그와 관련된 「전경」의 구절과 그 의미를 정리했다. ‘천지공사’에서는 인간과 신명(神明)의 관계도 중시되고 있으나,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자 현실적인 윤리적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내용이다. 도덕이 인간과 인간, 사회, 자연, 세계 등과 연관되어 있으나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도덕적 내용으로 『전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 사이의 갈등과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언행, 약자에 대한 관심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과 사회 혹은 국가와 관련된 내용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룰 것이다. 특히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끝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 내용이다. 주로 동식물과 생태 관련 내용이며, 환경윤리 혹은 생태윤리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먼저 개인의 인격 성숙과 도덕적 성품 함양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이는 대체로 세 가지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다. 첫째는 덕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도덕한 언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며, 셋째는 잘못이나 허물에 대한 반성과 개과(改過)이다. 이와 관련된 『전경』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전경』의 개인윤리 관련 구절

측면	출처	내용	관련 구절
덕성함양	교운 1장 16절	「...너는 이제부터 마음을 바로 잡으라. 대인을 공부하는 자는 항상 호생의 덕을 쌓아야 하느니라. 어찌 억조창생을 죽이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합당하리요」	교법 1장 21절, 23절, 36절, 2장 36절 예시 17절, 42절
부도덕한 태도나 언행을 하지 않는 마음	교법 1장 21절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복이 이르나니 남의 것을 탐내는 자는 도적의 기운이 따라들어 복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교법 1장 13절, 22절, 30절, 58절, 권지 1장 18절, 예시 17절
잘못이나 허물의 개과	교운 1장 2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자신의 허물을 회상하여 마음속으로 사하여 주시길 빌게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허물을 깨우쳐주시고, 그의 몸을 위해 적신과 모든 겁액을 풀어주셨다.	교운 2장 15절 교법 2장 16절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경』에서 개인의 인격 성숙과 도덕적 성품의 함양은 주로 ‘마음’의 문제로 되어 있다. ‘마음’은 ‘대순진리회’

에서 인성론의 근거이며, 천지의 중앙이자 신과의 소통 기관으로 이해되나,¹⁵⁾ 윤리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생각과 의지 등 정신적인 활동의 주체와 그 대상(객체)을 모두 의미한다. 윤리적 주체로서의 ‘마음’은 “마음에 있는 대로”,¹⁶⁾ “마음속으로”,¹⁷⁾ “마음에서 우러나는”,¹⁸⁾ “마음이 들다”¹⁹⁾ 등으로 표현되며, 그 대상(객체)로서의 ‘마음’은 “마음을 돌려”,²⁰⁾ “마음을 속이다”,²¹⁾ ‘마음을 품다’,²²⁾ ‘마음을 찾다’,²³⁾ ‘마음을 밝히다’,²⁴⁾ ‘마음을 닦다’,²⁵⁾ ‘마음을 부지런히 하다’²⁶⁾ 등등 의지적 주체의 대상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개인 의지의 주체이자 대상인 ‘마음’을 인격과 도덕적 성품의 본체로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이해를 신념으로 하여 ‘수심’(修心)을 주장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회, 자연 등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관계에 대한 내용은 『전경』에서 ‘천지공사’ 관련하여 가장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후천’시대를 ‘인존’(人尊)시대로 보는 신념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²⁷⁾ 곧 인간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사는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이다.²⁸⁾ 이러한 신념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했고, 그것을

15) 김의성, 앞의 글, pp.57-62.

16) 『전경』, 공사 2장 16절 등.

17) 같은 책, 공사 2장 11절 등.

18) 같은 책, 교운 1장 7절 등.

19) 같은 책, 행록 5장 35절 등.

20) 같은 책, 행록 4장 7절, 4장 55절, 교운 1장 16절 등.

21) 같은 책, 행록 4장 18절 등.

22) 같은 책, 행록 4장 20절, 공사 3장 19절, 교법 2장 5절 등.

23) 같은 책, 공사 2장 11절 등.

24) 같은 책, 교운 1장 34절 등.

25) 같은 책, 교운 1장 34절, 교법 1장 21절 등.

26) 같은 책, 교법 2장 12절, 2장 56절 등.

27)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

28) 이경원, 앞의 글, pp.771-772 참조.

통해 기존의 도덕규범이나 관습을 변혁하고자 한 것이 ‘천지공사’의 주요 내용이 된 것이다.

『전경』에 나타난 인간관계의 도덕적 내용들도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로서 타인(남)에 대한 입장이고, 둘째는 주로 관심을 갖는 인간에 대한 입장이며, 셋째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다. 여기에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다툼에 대한 입장도 포함된다. 물론 이러한 입장들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새로운 사회상에 대한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다.

먼저 인간관계의 기본원리를 보자. 『전경』의 ‘천지공사’에서 타인(남)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적인 태도는 “남을 잘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윤리적 이타주의(利他主義, altruism)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자.

<표 3> 『전경』의 이타주의 관련 구절

연번	출처	내용	관련 구절
1	교법 1장 2절	우리의 일은 남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	교법 2장 50절
2	교법 1장 11절	「... 남을 잘 말하면 덕이 되어 잘 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나 남을 헐뜯는 말은 그에게 해가 되고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리라」 하셨도다.	교법 1장 26절 교법 3장 9절
3	권지 2장 24절	박 공우가 상제의 명을 받들어 각처를 순회하다가 어느 곳에서 상제를 믿지 않고 비방하는 것을 듣고 돌아와서 상제께 아뢰려니 상제께서 미리 아시고 「어디서 무슨 부족한 일을 보고 당하여도 큰일에 낭패될 일만 아니면 항상 남을 좋게 말하기를 힘쓰라」고 타이르셨도다.	예시 46절 교법 2장 46절 교법 3장 12절
4	권지 2장 32절	상제께서는 결혼날의 날씨를 부조하셨도다. 이해 겨울은 몹시 춥고 날씨가 고르지 못하였으므로 덕ائن이 크게 염려하였으나 혼삿날은 봄과 같이 따뜻하므로 마음을 놓으니라. 여러 사람이 「상제의 부조를 받은 혼삿날이라」고 칭송하였도다.	
5	교법 1장 57절	남을 속이지 말 것이니 비록 성냥갑이라도 다 쓴 뒤에는 빈 갑을 반드시 깨어서 버려야 하나니라.	교법 2장 44절 교법 3장 21절 예시 17절

<표 3>의 연번 1과 2는 이타주의의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타인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의거하여 남을 좋게 말하는 것(연번 3), 남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연번 4),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연번 5) 등 이타주의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이타주의의 원리가 선악(善惡)에 대한 종교적 신념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²⁹⁾ 곧 남이 잘되게 하는 것이 선이고 남에게 잘못하는 것이 악이자 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악마저도 선으로 갚으라는 철저한 이타주의 주장도 가능한 것이다.³⁰⁾

타인에 대한 윤리적 이타주의가 인간관계에서의 기본적 원리이지만, 『전경』에서는 그러한 원리가 우선적이고 집중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타인을 특정하고 있고, 바로 그 점에서 그 이타주의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 『전경』에서 거론되는 주요 대상은 크게 가족, 사회적 약자, 병자 등을 들 수 있는 바, 먼저 가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전경』에 나타난 이타주의의 주요 대상과 내용 1(가족)

연 번	출 처	내 용	관련 구절
1	교운 1장 43절	상계께서 공사(公事)를 행하신 후부터 부친도 일상생활에서 의존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또 평소의 허물을 누우쳐 앞길을 닦도록 하고 간혹 중도들로 부터 물품이나 그 밖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일체 금하셨도다. ... 「네가 어찌 나의 부친에게 허물을 만들어 드리뇨. 아직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불효라고 하겠으나 나는 부모의 앞길을 닦아 드리려고 내가 항상 형편을 살피고 있으니 너희들이 부친을 도울 생각이 있으면 나의 허락을 얻어 행하라」고 명하셨도다.	행록 1장 17절 교법 1장 40절 교법 1장 41절 제생 3절

29) 『전경』, 교법 2장 55절, “지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 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

30) 같은 책, 교법 3장 15절, “...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 나를 좇으려거든 잘 생각하여라」 하시니라...”

2	행록 3장 36절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요 지회 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 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라. 그러 므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였 도다. 그 머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교법 3장 21절
3	교법 1장 43절	상제께서 김 보경에게 글을 써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너의 소실과 상대하여 소화하라」 보경이 그 후 성 병에 걸려...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본처를 저 버리지 말라」 하시고 성병을 곧 낫게 하셨도다.	교법 1장 51절

가족관계에서의 윤리적 태도는 크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4>의 연번 1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한 것으로 ‘구천상제’도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연번 2는 부모와 자식의 천륜(天倫)을 말한 것으로 그것을 끊는 것이 죄가 됨을 역설한 것이다. 연번 3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끊게 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한 것으로 부부 관계에서의 정절의 중요성을 중시한 것이다. 특히 소실 제도를 문제 삼고 유부녀를 범하는 것을 “천지의 근원을 어긋침이니 죄가 워낙 크다”(교법 1장 51절)라고 한 것은 당대의 관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경』의 이타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이다. 이는 ‘천지공사’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 쓰기” 위한 것으로 언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³¹⁾

<표 5> 『전경』에 나타난 이타주의의 주요 대상과 내용 2(사회적 약자)

연번	출처	내용	관련 구절
1	교법 3장 1절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나들게 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예시 7절 교법 3장 4절

31) 같은 책, 예시 7절,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탄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삼계를 개조하기 위함 이로다.”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 되는 연교이니라」 말씀하셨도다.	
2	교법 1장 38절	상제께서 안 내성에게 말씀하셨도다.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하지 말며 남과 다투지 말며 천한 사람이라 천대하지 말며 남의 보화를 탐내지 말라. 보화라는 글자 속에 낭패라는 폐자가 들어 있느니라.」	교법 1장 10절
3	교법 1장 24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부귀한 자는 빈천을 즐기지 않으며 강한 자는 약한 것을 즐기지 않으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않으니 그러므로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가 곧 나의 사람이니라」 하셨도다.	교훈 1장 32절
4	교법 2장 11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후천에서는 약한 자가 도움을 얻으며 병든 자가 일어나며 천한 자가 높아지며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을 것이요 강하고 부하고 귀하고 지혜로운 자는 다 스스로 꺾일지라」고 이르셨도다.	예시 83절

『전경』에서 자주 거론된 사회적 약자들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천한 자 등이다. 이타주의가 자기보다는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윤리관으로, 실제의 현실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구현되는바, <표 5> 연번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종교적 신념, 곧 ‘천지공사’로서 정당화되고 있다. 그리고 연번 2, 3, 4는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이유와 방법의 일단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회적 약자들로는 각종 병에 걸린 사람, 상놈, 서자(庶子), 무당, 머슴 등이다. 이들은 당대 사회에서 가장 하위의 계층이고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도 『전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들은 병자일 것이다. 『전경』에는 ‘상제’가 대략 50여 회 병자를 고친 기록이 있다. 구체적인 병명이 언급된 것도 있고,³²⁾ 병명이 언급되지 않거나

32) 『전경』에 구체적인 병명(病名)이 언급된 것들로써 다음과 같다. 요통(행록 2장 19절, 제생 36절), 상해(행록 3장 7절, 3장 59절, 제생 30절), 해숫병(공사 1장 20절, 제생 31절), 폐병(교훈 1장 24절, 제생 22절), 성병(교법 1장 41절), 산후 복통(제생 5절), 천식(제생 5절), 횃배앓이(제생 6절), 치질(제생 7절), 간질병(제생 8절), 체증(제생 10절), 앓은뱅이(제생 11절, 25절, 42절), 문둥병(제생 14절), 괴질(전염병, 제생 23절), 토질(풍도병, 제생 24절), 다리부종(제생 26절), 반신불수(제생 27절), 신열(제생 31절), 창증(제생 32절), 천포창(제생 33절), 안질 혹은 눈병(제생 34절),

‘급살병’ 혹은 ‘급병’, ‘오래된 병’ 혹은 ‘신병’, ‘위독한 병’, ‘죽게 된 병’ 등으로만 언급한 경우도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린 경우³³⁾도 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문둥병, 간질병, 앓은뱅이, 반신불수, 천식 등등 대체로 ‘천지공사’ 당시에는 고치기 힘들거나 거의 불가능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었고 병으로 가장 고통을 많이 받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천지공사’에서의 치병은 당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대변하는 것이다.

‘천지공사’에서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갖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救濟)하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진경』에 나타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표 6> 『진경』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제 사례

연번	출처	내용	관련 구절
1	행록 1장 35절	… 오 동팔(吳東八)의 집이 무너졌도다. … 어느 날에 면이 없는 사람이 와서 움막살이의 참상을 보고 손수 집을 한나절 만에 세우고 흔적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지라. 사람들은 수십 일 걸릴 일을 하루도 못 되게 완성한 것에 크게 놀랐도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사 신장을 보내신 덕이라 믿고 더욱 상제를 좇는도다.	권지 2장 15절 권지 2장 18절
2	교운 1장 15절	… 내가 먼저 모범을 지어야 하리라! 말씀하시고 본택의 살림살이와 약간의 전답을 팔아 그 돈으로 전주 부중에 가서서 지나가는 걸인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제생 11절 공사 2장 18절
3	행록 4장 27절	六월에 이르러서도 가뭄이 계속되어 곡식이 타 죽게 됴에 김 병욱이 김 윤근(金允根)으로 하여금 상제께 이 사정을 전하게 하니라. 사정을 알아차리시고 상제께서 덕찬에게 그의 집에서 기르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고 중도들과 함께 그것을 잡수셨도다. 이때 갑자기 뇌성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윤근은 「선생이 곧 만인을 살리는 상제시니라」고 고백하였도다.	공사 1장 24절 권지 2장 16절 권지 2장 17절 예시 53절
4	예시 82절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록을 붙여 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땀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	교법 1장 14절 예시 11절 권지 1장 8절

이질(제생 37절), 설사(제생 39절), 단독(丹毒, 제생 41절).

33) 같은 책, 교운 2장 37절.

<표 6>의 연번 1은 ‘상제’가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와준 것으로 뜻하지 않은 자연 혹은 인위적 재난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사례이다. 연번 2는 상제가 직접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모범을 보인 사례이다. 연번 3은 농사를 망치게 된 가목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민을 구제한 사례로, 『전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제의 방법 중 하나이다. 당시는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구제가 중요할 수 있다. 연번 4는 ‘천지공사’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구제 받게 될 것을 선언한 내용으로, ‘천지공사’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것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전경』에 나타난 이타주의 원리는 그것이 적용 불가능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개인이 아무리 이타적인 성품을 지녔다 하더라도 사회가 구조적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이타주의적 행위마저 별로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전경』에서는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각종 차별의 철폐, 계층 간의 갈등 해소, 악습 폐지 등 세 방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각종 차별의 철폐는 ‘천지공사’가 실시될 당시의 상황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도덕적 변혁의 주창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각종 차별의 철폐와 관련된 『전경』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자.

<표 7> 『전경』에 나타난 사회구조적 개혁 내용 1(차별 철폐)

연 번	출 처	내 용	관련 구절
1	교법 1장 9절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적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	교법 1장 2절 교법 1장 10절
2	행록 4장 10절	종도들이二월의 따뜻한 어느 날 상제와 함께 보리밭 길을 지날 때 「이 세상에 빈부의 차별이 있는지라. 곡식 중에 보리가 있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보리를 없애야 먹는 데에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리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니라. 상제께서 이야기를 수긍하시는 태도를 취하셨도다.	행록 4장 48절 교법 2장 8절 교법 3장 4절

3	행록 1장 38절	...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습니다. 「교부에 나보다 향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향렬을 좇아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 하셨도다.	행록 5장 16절 교법 1장 10절 교법 1장 38절
4	교법 1장 68절	후천에서는 그 닭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예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교법 2장 40절
5	예시 42절	또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속에 병신이 육갑한다는 말은 서투른 글자나 배웠다고 손가락을 꼽작이며 아는 제한다는 말이니 이런 자는 장차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시고	교법 2장 40절

<표 7>의 연번 1은 양반과 상인(상놈)이란 신분차별 철폐에 대한 정당화로서 ‘천지공사’에 따른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다. 반상 차별은 당시의 사회제도로써 공인된 것이었으나 그 철폐를 종교적 신념에 의해 주장한 것이다. 연번 2는 빈부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으로,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폐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그 철폐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더군다나 ‘상제’가 빈궁한 사람을 ‘내 사람’(교법 2장 8절)으로 지칭함으로써 빈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3은 향렬(行列)이나 적서(嫡庶), 스승과 제자 등 당시 사회적으로 공인되거나 관례화된 차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 할 수 있다. 연번 4는 남녀차별을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인 바, 남존여비가 사회적 관행이자 제도로써 공인된 상황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연번 5는 인간에 대한 차별 문제를 노소, 지식의 많고 적음, 그리고 힘의 강약에까지 확대하는 주장으로, 역시 모든 인간에 대한 차별 없는 존중의 입장이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제도적 차별의 문제는 기업(상업)과 관련해서도 나타

난다. 당시 관부(官府)로부터 경영권을 얻은 도매업자로 인해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상제’가 한 소매업자에게 용기를 주어 소매업자들을 결속시키고 결국 그 도매업자로 하여금 경영을 포기하게 만든 일³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날 대기업의 대형마트와 소형 자영업자들 사이의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그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표 8> 『전경』에 나타난 사회구조적 개혁 내용 2(사회적 갈등 해소)

연 번	출 처	내 용	관련 구절
1	행록 3장 14절	일진회와 아전의 교쟁이 전주에서 갑진년 七월에 있었도다. 최 창권(崔昌權)이란 사람이 부내의 아전을 모아 일진회 타도의 의병을 일으키고자 각 군 각 면으로 통문을 보냈도다. 상제께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어떻게 살아난 것이 또 죽겠으니 그들을 내가 제생하리라」 하시니라. … 그날 오후에 아전과 일진회원 사이에 화해가 이룩되니 일진회원들이 사문을 열고 입성하니라.	제생 19절 공사 1장 25절
2	교법 1장 12절	상제께서 당시에 대하여 심히 비방하고 능욕하는 사람에게도 예로써 대하셨도다. 종도들이 불경한 자를 예우하시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기에 상제께서 말씀하시되 「저희들이 나에게 불손하는 것은 나를 모르는 탓이니라. 그들이 나를 안다면 너희가 나를 대하듯이 대하리라. 저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을 내가 어찌 개의하리오」 하셨도다.	교법 1장 20절 교운 2장 59절
3	교법 1장 56절	원수의 원을 풀고 그를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도 덕이 되어서 복을 이루게 되나니라.	교법 1장 34절 교법 1장 53절 교법 1장 12절
4	행록 1장 19절	상제께서 … 중들이 상제를 무례하게 대하므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 있는 이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후세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하시고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 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백배사죄하였도다. 그 뒤에 물러난 법당 기둥을 원상대로 회복하려고 여러 번 수리하였으되 그 기둥은 꺾이지 않더라고 전하는도다.	교운 2장 59절

34) 같은 책, 권지 1장 17절.

<표 8>의 연번 1은 ‘상제’가 일진회와 아전, 삼촌과 조카(叔姪) 사이의 갈등과 다툼을 해결한 내용이며, 더 나아가 ‘상제’를 존양반으로 종도 한 사랑을 읊내 아전에 비유하여 그 화해를 ‘해원’으로 설명함으로써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나 계층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연번 2는 사회적 갈등의 중요 원인이 비방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비록 비방을 받더라도 함께 비방하거나 적대시 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번 3에서 원수마저 은인과 같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방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님을 연번 4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전경』에는 사회적 악습과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컨대 술과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일(행록 5장 4절, 제생 24절), 노름(권지 1장 18절, 교법 1장 58절), 과부와 홀아비의 개가(改嫁: 재혼) 금지, 각종 세속적 의식과 허례(교법 1장 18절)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특히 학교 설립을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성품의 인간을 교육해야 한다는 적극적 노력도 함께 강조되어 있다.³⁵⁾

끝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전경』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자. 자연과 관련된 『전경』의 언급은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것(<표 9>의 연번 1, 동식물에 대한 것(연번 2~4), 땅에 대한 것(연번 5)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9> 『전경』에 나타난 자연(생태)윤리에 관한 내용

연 번	출 처	내 용	관련 구절
1	권지 2장 36절	상제께서 종도들이 풍·우·한·서(風雨寒暑)에 따라 불편을 아플 때마다 천기를 돌려서 편의를 보아 주시니라. 하루는 상제께서 「너희들이 이후로는 추위도 춥다 하지 말고 더위도 덥다 하지 말고 비나 눈이 내려도 불평하지 말라. 천지에서 쓸 데가 있어서 하는 일이니 항상 말썽을 부리면 역천이 되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	

35) 같은 책, 교운 1장 17절,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현하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봉록 등 비열한 공리에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 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도다.”

2	행록 1장 11절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후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못 사람으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으실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다.	
3	권지 1장 26절	…김 덕관과 김 성국은 꿩이 많이 날아와서 밭에 앉기에 그물을 치고 꿩잡이를 하였는데 이것을 상제께서 보시고 「너희들은 잡는 공부를 하라. 나는 살릴 공부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상하게도 그 많은 꿩이 한 마리도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니라.	권지 2장 5절 행록 2장 22절
4	공사 3장 8절	이 도삼이 어느 날 동쪽으로 상제를 찾아보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날같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표범·이리·늑대로부터 모기·이·벼룩·빈대애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다.	
5	교운 2장 35절	이때부터 도주께서는 토지를 해원하고 제민(濟民) 하고자 안면도와 원산도(元山島) 두 섬에 간사지(干溇地)를 개척하기 시작하셨다. …안면도의 二十만 평의 농지와 원산도의 염전(鹽田)은 두 곳의 여러 마을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다.	

『전경』에서 자연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표 9>의 연번 1이다. ‘천지공사’가 ‘인존’(人尊) 시대를 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동시에 자연의 변화에 순응해야 함을 연번 1은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후천’ 시대에는 인간이 중심이 되지만 자연을 인간 마음대로 다루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연번 2와 3은 ‘상제’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보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간과 동식물 사이의 ‘호생(好生)의 덕’을 거론함으로써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상생’의 윤리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번 4는 후천세계에서 이루어질 이상세계, 곧 ‘지상천국’의 모습을 설명한 것으로³⁶⁾ 인간과 자연(동물) 사이에 어떠한 ‘척’도 ‘원’도 생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연번 5는 ‘도주’가 간사지

36) 차선근, 앞의 글, p.235.

(개필)를 개간함으로써 농지와 염전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한 내용으로, 토지의 ‘해원’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적용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도 자연을 통한 사람의 구제라는 윤리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요컨대 『전경』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이해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상생’의 관계로 보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태도를 윤리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IV. ‘천지공사’의 윤리적 체계와 그 현실성

앞의 III장에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과 그 특징을 개인, 인간과 인간 및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천지공사’의 윤리적 체계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천지공사’의 윤리 체계

범 주	세부 범주	도덕규범 대상 및 방법	대표적 규범들
개인	기본 관점	마음의 문제	수심(修心)
	도덕적 성품 함양	언행	반성과 개과
인간과 인간 및 사회	기본원리	(현실적) 이타주의	남을 잘되게 함
	주요 관심 대상	가족 사회적 약자 병자	효, 천륜의 지킴 특별한 관심과 배려 치유
	사회구조	차별 갈등 폐습	차별 철폐 갈등 해소 폐습 폐지
인간과 자연	기본관점	자연 그대로의 보호	자연에 순응
	동식물	호생(상생)	살생의 금지
	땅	사람의 구제	구제

<표 10>에서 정리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체계는 개인과 사회와 자연을 기본범주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범주에 관점이나 원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세부 범주를 구분한 다음, 그것을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에 적용시켜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범주의 설정이나 세부 범주의 구분, 그리고 구체적인 규범들이 모두 ‘천지공사’라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체계가 비록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고 그것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천지공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 윤리체계에 따른 구체적인 규범들이 당대에 현실적 의미가 있는 규범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상제’가 당대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지공사’를 하고 구체적 윤리 규범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³⁷⁾

‘천지공사’가 진행되었던 20세기 초반은 동학혁명에 의해 단적으로 분출된 사회적 모순과 갈등, 고통 받는 민중의 절규, 그리고 갖가지 적폐(積弊)가 심화되고 악화되는 시기였다. 더군다나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 민족의식마저 위기에 처했다. 말하자면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이 결합되어 있고 그로 인해 전통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계층 간 갈등과 격차는 점점 더 커졌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상놈, 빈농, 병자, 천민 등등)는 더욱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³⁸⁾ 『전경』에 언급한 사회구조적 문제, 곧 반상차별, 적서차별, 빈부차별, 남녀차별 등등이 극명하게 나타난 시대가 20세기 전후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고, 각종 전염병과 사고, 살상, 민란 등 인재마저 빈발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조선 말기 국정(國政)은 부정부패로 얼룩졌고 관리들은 압제와 수탈로 민중들을 괴롭혔는데, 그러한 사회상이 ‘천지공사’의 과정에서 여실히 고발되고 있다.³⁹⁾

37) 박규태,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상」, 『종교와 문화』 7 (2001), pp.269-270.

38) 노길명, 『한국의 종교운동』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pp.131-137 참조.

39)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p.57-59 참조.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와 도덕규범들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와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적이고 가히 혁명적인 의지를 담지하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곧 당대의 시대적 상황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인지하고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 규범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와 도덕규범을 종교윤리학에서 구분하는 세 가지 윤리 범주, 곧 개인윤리, 사회윤리, 자연(생태)윤리의 관점에 따라 그 의의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윤리와 관련하여 ‘마음’을 의지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파악한 것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볼 수 있다. ‘마음’을 의지의 주체로 이해할 때 스스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성찰이 중시될 수 있고, ‘수심’이라는 규범을 통해 스스로 윤리적 주체임을 자각하도록 할 수 있다. 곧 ‘마음’을 자유의지의 주체로서 인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마음’을 의지의 객체로 이해함으로써 잘못과 실수 혹은 죄에 대한 반성과 개과(改過)의 동기를 줄 수 있다. 개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의지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객체화하여 반성할 수 있는 이중의 자기 이해를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사회윤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사회구조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전자를 보자.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의 측면에서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와 규범이 지닌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관계의 기본원리를 이타주의에 두고 있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과 이익에 일차적인 윤리적 행위의 목적을 두는 윤리적 이타주의는 대다수 종교들에서 제시하는 최고선(最高善)과 상통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황금율(golden rule)이든 은율(silver rule)이든 최고선으로 제시되는 규범은 모두 자기보다는 타인을 윤리적 행동의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타주의(altruism)는 이기주의(egoism)의 또 다른 표현이거나 둘이 상호의존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가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타주의에서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⁴⁰⁾ 말하자면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자신도 잘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만 잘되려고 하는 것에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천지공사’의 관계의 윤리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이다. 약하고 어리석고 가난하고 천하고 병든 사람들로 관심의 대상을 특정한 것은 이타주의의 의미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점이 ‘천지공사’ 윤리체계의 다른 하나의 의미이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타주의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타자로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에서 볼 수 있는 사회윤리의 특징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반상차별, 빈부차별, 계층이나 향렬에 의한 차별, 남녀차별, 학력(지식의 유무)에 의한 차별 등등 당시에 문제가 되던 거의 모든 차별이 거론되고 그 철폐가 선언되었다. 이는 모든 인간에 대한 평등과 천부적 인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권력남용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개가(改嫁) 금지나 각종 폐습, 허례허식마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전면적인 사회의 구조적 변혁을 촉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근본적이고 철저한 사회변혁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체계와 도덕규범의 의의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천지공사’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2가지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과 모든 동식물을 호생(好生), 곧 상생의 관계로 본 것이다.

40) James Iverach, "Altruism", in James Hastings, 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1 (Edinburgh: T.&T. Clark, 1911), p.356.

전자와 관련하여 볼 때, ‘천지공사’의 과정에서 ‘상제’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멈추기도 하고 솟아나게 하기도 하며,⁴¹⁾ 천둥과 번개를 멈추게 하기도 하거나,⁴²⁾ 비를 그치게도 하고,⁴³⁾ 바람과 날씨마저 자유로이 변화시키는⁴⁴⁾ 등등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러한 모든 현상들은 ‘상제’의 권능과 ‘천지공사’의 매개로서의 상징으로 이해된다.⁴⁵⁾ 중요한 점은 자연의 변화에 불평하지 말고 순응할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그 불평을 ‘역천’(逆天)으로 규정했다. 또한 인간과 동식물을 상생의 관계로 본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식물을 단지 인간의 생명을 위한 자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공생(共生)의 대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해치는 동물을 없애겠다는 것도 상생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땅을 개간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세 측면에서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에 나타난 특징과 의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그 윤리체제는 당시로는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이고 철저한 개혁과 변혁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규범들로 구체화되었다. 곧 당시로서는 그러한 규범들이 현실적 의의가 매우 큰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규범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인가?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이미 그 현실성이 약화되거나 없는 규범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오늘날 반상과 적서에 의한 차별은 거의 없다. 개과의 금지도 없어졌고 남녀의 차별이나 향렬에 따른 서열도 사회제도로써의 의미는 없다. 그렇지만 ‘천지공사’ 당시나

41) 『전경』, 권지 1장 17절.

42) 같은 책, 교운 1장 25절.

43) 같은 책, 권지 1장 13절.

44) 같은 책, 권지 1장 9절.

45) 이경원, 「강중산 천지공사의 종교적 상징체계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4 (2006), pp.112-119 참조.

지금이나 여전히 의미가 있는 규범들도 많다. 빈부의 차별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심화되고 있다. 자본과 지식과 권력의 집중은 약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더욱 천대와 소외, 생활고에 시달리게 한다. 자연은 생태계 전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개발, 파괴되고, 무수한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도 ‘천지공사’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병자에 대한 관심, 자연에 대한 호생의 덕 등등 많은 윤리적 규범들은 여전히 현실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에서 기본적 원리와 관점을 토대로 오늘의 현실에 적합한 대상과 방법을 찾아보고 그에 따른 구체적 규범들을 설정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윤리의 측면에서는 윤리적 의지의 주체이자 객체로서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의 수련과, 잘못된 언행에 대한 반성과 개과를 구체적인 규범으로 하였던 바, 그 현실성은 지금도 여전하다 할 수 있다. 사회윤리의 측면에서는 남을 잘되게 하는 이타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가족 사이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보살핌, 부부의 신뢰와 성실 등 천륜과 인륜을 모두 중시하는 규범들은 오늘의 현실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 관심을 두는 규범들과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차별의 철폐, 폐습의 폐지, 갈등의 해소 등 구체적인 규범들도 현실적 의미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천지공사’ 당시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천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이지만 그 구체적 대상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이성애자보다는 동성애자 혹은 양성애자가, 성인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이,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사람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이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가 되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갈등을 고려한 새로운 규범들이 필요한 것이다. 자연윤리와 관련해서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하고 동식물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덕규범들의 제시가 필요하다. 자연의 파괴를 막고 개발을 최소화하며 미물이라도 살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규범들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와 그 규범들이 지닌 현실성은 다종교 사회의 관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미 그 체계와 규범이 지닌 몇 가지 중요한 현실적 의의는 언급하였다. 문제는 그러한 체계와 규범에 대한 정당화가 종교적 신념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들에게는 그 점이 당연하겠지만 종교다원사회에서 그 정당화는 특정 종교 내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윤리체계와 규범들이 지닌 현실성을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그 정당화하는 신념은 다를지라도 규범들의 사회적 적용과 실천을 위해서는 기꺼이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난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가치 있는 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고 하여 함께 도울 수 없다면 그만큼 사회적 현실성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 돕는다면 종교적 신념의 수용을 조건으로 하여 돕는 것은 오히려 그 현실성을 축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종교다원사회에서는 불가피하게 종교간 경쟁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종교적 신념이 공존하고 각각의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와 교리, 의례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신념을 절대적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사회가 유지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과 선의의 경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각 종교들이 지닌 윤리체계와 규범들의 현실성은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말하자면, 어떤 종교나 교단 혹은 종단이 우리 사회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 체계와

규범들을 얼마나 많이 제시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지를 선의의 경쟁물로 제시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천에서 공존의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면, 종교다원사회에서의 종교간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천지공사’의 윤리체계와 그 규범들도 그러한 공존과 선의의 경쟁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맺는 말

윤리 규범들(norms)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비록 그 규범들의 원리(principles)는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거한 구체적 규범들은 시공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리한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들 중에도 반상철페나 개가금지와 같은 규범들은 오늘날 더 이상 규범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또한 오늘날에는 ‘천지공사’ 당시에 전혀 고려되지 못한 새로운 규범들도 생겨났다. 안락사나 뇌사, 동물실험 혹은 생명복제와 같은 생명윤리에서의 규범들이 그러한 예들이고, 핵(核)의 사용이나 각종 현대적 문명의 이기(利器) 등과 관련된 규범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와 관련한 윤리규범의 제정과 그에 따른 구체적 활동도 중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규범들은 윤리적 원리에 의거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종교윤리의 경우 그러한 새로운 체계와 규범들을 종교적 신념을 통해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 규범들은 이미 한 세기 이전의 사회적 정황을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며,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거나 약화된 것들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개인과 사회와 자연에 적용된 윤리적 원리들에 따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윤리규범들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다. ‘마음’을 윤리적 주체이자 객체로 인지하여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동시에 모든 언행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은 개인윤리의 원리로서 그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남을 잘되게 하는 윤리적 이타주의의 원리에서 타인과 사회제도의 윤리적 규범들을 설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필요하다. 자연과 인간을 공생 혹은 호생의 관계로 보는 자연윤리의 원리도 이미 오늘날 매우 중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원리들을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적용하여 새로운 도덕규범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종교적 신념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천지공사’를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종교나 교단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도덕규범들을 제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이 하나 더 있다. 곧 오늘날의 종교다원사회이다. 비록 한 종교나 교단 혹은 종단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어떤 도덕규범이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나 교단, 종단에 의해서도 그 종교적 신념에 의해 그 도덕규범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다원사회에서 여러 종교들에 의해 함께 정당화되는 규범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특정의 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종교적 신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선의의 경쟁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천지공사’에 나타난 윤리적 원리들은 물론이고 그것에 따라 제시된 많은 규범들이 오늘의 종교다원사회에서도 적용 가능하고, 다른 종교나 교단들에 의해 제시되는 규범들과 상응하는 것들도 적지 않다. 또한 위에서 거론한 것과 같이 그 원리들에 비추어 새롭게 제시되어야 하는 규범들도 많다. 그러한 것들이 ‘천지공사’를 신념의 토대이자 근거로 하고 있는 ‘대순진리회’가 해야 할 과제를 말해준다. 변화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종교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 요람』

『대순성적도해요람』

『포덕교화기본원리』

『도헌』

고남식,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본 대순진리회의 『전경』과 증산 관련 경전의 경향」, 『신종교연구』 16, 2007.

김석한, 「증산 강일순의 대순사상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성윤, 「강증산의 이상사회론과 ‘천지공사’」, 『지역과 역사』 7, 2000.

김영두, 「증산사상과 그 세계사적 전개 - 해원상생·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1, 1996.

김의성, 「대순사상의 윤리관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김홍철·류병덕·양은용, 『한국신종교실태조사보고서』,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7.

대순종교문화연구소 편,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3.

류성민, 「종교와 도덕의 관계 - 종교윤리학 방법론의 기초」, 『종교연구』 24, 2001.

_____, 「한국 종교인구 분포 비율의 변화와 그 특징 - 1985, 1995, 2005년의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56, 2009.

박규태, 「한국 신종교의 이상적 인간상 - 조화의 이상과 관련하여」, 『종교와 문화』 7, 2001.

박용철, 「천지공사에 나타난 러일전쟁과 인류평화」, 『대순사상학술대

- 회 자료집』 2, 2000.
- 양무목, 「천지공사와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 2, 1997.
- 윤재근, 「대순사상에 있어서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인식 -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15, 2002.
- _____, 「대상사상의 의미체계에 대한 상징해석 -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17, 2003.
-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4, 1998.
- _____, 「대순종지와 천지공사」, 『대순사상논총』 6, 1998.
- _____, 「대순진리회의 ‘상생’이념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3, 2005.
- _____, 「강증산 천지공사의 종교적 상징체계에 대한 연구」, 『신종교연구』 14, 2006.
- 장병길 편술, 『천지공사론』,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 장병길, 『증산종교사상』, 서울: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3.
- 차선근, 「대순진리회의 개벽과 지상선경」, 『신종교연구』 29, 2013.
- James Iverach, “Altruism”, in James Hastings, ed.,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1, Edinburgh: T.&T. Clark, 1911.
- Little, David and Summer B. Twiss, *Comparative Religious Ethics: A New Method*, New York and London: Harper & Row, 1978.
- Morgan, Peggy and Clive Lawton, *Ethical Issues in Six Religious Tradition*, Edinburgh: Edinburgh Univ. Press, 1996.
- Outka, Gene and John P. Reeder, Jr., ed., *Religion and Morality: A Collection of Essays*, New York: Anchor Books, 1973.
- Phillips, D. Z., *Religion and Morality*,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1996.
- Schweiker, William,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Religious Ethics*, Malden, MA and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5.
- Smurl, James F., *Religious Ethics: A Systems Approach*,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Abstract▪

A Study on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of ‘Reorganizing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in the Scripture of Daesoonjinrihoe

Sung-Min Ryu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of the scripture (Jeongyung, 典經) of Daesoonjinrihoe, one of religious orders in Korea. It is ‘the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 (ROHE, 天地公事) that the believers of Daesoonjinrihoe regard as the essence and basis of their religious belief in Jeongyung, and so I focus on it in this paper. And I have applied the method of religious ethics that recognize the relation religion and morality for understanding religious-ethical meaning of moral principles and norms.

In the process of this study I have selected a lot of moral principles, norms and activities in ROHE, and sorted them with their social context of ROHE. In this research I have found some characteristics of ethical norms in the ROHE according to three divisions of ethical category such as personal, social and natural ethics.

The understanding of mind is an important point of personal ethic in the ROHE. The mind is understood as the subject and object of personal ethical attitude and volition. So one could

have ethical attitude by oneself with mind as subject, and reflect and correct on his ethical faults with the mind as ethical object.

The distinctiveness of social ethic in the ROHE is special concerns to the weak at that time such as sick person, illegitimate children, shamans, farmhands and etc. This i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ethical altruism of the ethic of mutual beneficence(相生) and the dignity of human(人尊) in ROHE.

And the ethics of mutual beneficence is applied to natural ethic of ROHE. Since natural world including all sort of plants and animals is intimately related to the human worlds, so it is a desirable attitude for to accommodate to the changes of nature.

Even if these characteristics of ethics in ROHE are justified by the religious beliefs, the norms from them are available in our religious pluralistic societies, since they have common ethical values of other religious ethics.

It is my concluding remark that religious orders or denominations have to offer a lot of moral norms suitable to religious pluralistic situation. Because it is needed for our society to conquer various sort and kind conflicts among religions, and to act harmoniously together for public peace.

Key words : the religious-ethical meaning, ‘the reorganizing in the order of heaven and earth’(天地公事), personal ethic, social ethic, natural ethic, ethical altruism, the ethic of mutual beneficence(相生), the dignity of human(人尊), religious pluralistic society

◎ 투 고 일 : 2014년 5월 31일

◎ 심사 기간 : 2014년 7월 24일~25일

◎ 게재 확정 일 : 2014년 7월 27일